音讀口訣 硏究의 回顧와 展望*

남경란**

要約

이 글은 이들 구결 가운데 특히 음독구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글이다.

음독구결 연구는 197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문자론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세분화되어 구결 자형의 본자(本字)와 그 독법, 분포와 결합유형, 표기법과 문법의 특징 등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구결 자형에 대한 고증과 형태의 기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구결의 전반적인 정리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아울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음독구결 자형과 문법의 특징들을 체계화한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음독구결의 연구 성과는 (1) 문자론적 연구, (2) 형태·통사론적 연구, (3) 기타로 나누고 이들을 각 1970년에서 2000년까지 연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음독구결에 대한 연구는 문자론적 측면과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15세기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8-A0007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문연구교수

언해본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그 동안 밝히기 어려웠던 일부 구결의 문법형태와 음독구결의 문법 정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에 소개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끈기 있게 연구할 연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아울러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유불경의 많은 음독구결 자료들을 유가와 불가별로 분류·정리하여 보급하는 일과 음독구결을 연구할 수 있는 안내서를 출간하는 것도 남아 있는 과제이다.

*핵심어 : 음독구결, 연구 성과, 문자론, 형태통사론, 회고, 전망

1. 서론

차자표기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차자표기 자료로는 광개토대왕비(414년)를 들 수 있으며, 이 표기법은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어 왔다. 차자표기법은 어휘 표기와 문장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을 표현한 차자표기에는 이두, 향찰, 구결[1]이 있다. 이 중 구결은 외형적, 혹은 내용적 표기 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글 구결과 차자 구결, 부호 구결, 그리고 석독 구결, 음독구결 등으로 나뉜다. 이 글은 이들 구결 가운데 특히 음독구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구결 문헌들은 훈민정음 이전 시대의 우리말을 엿보게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

1) 구결은 '입겾'이라는 말의 차자 표기이다. 필자는 원래 구결 대신 '입겾'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주어진 제목에 맞추어 구결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은 음독구결 자료들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음독구결 자료로는 『능엄경』,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영가진각선사증도가』, 『천태사교의』, 『범망경보살계』, 『금강반야경소논찬요조현록』, 『선종영가집』,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 『금강반야바라밀경』, 『불설사십이장경』, 『법화경』, 『육조대사법보단경』 등의 불경 자료와 『경민편』, 『맹자언해』, 『맹자집주』, 『소학』, 『시전정문』, 『서전정문』 등의 유경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자료가 양적으로 풍부할 뿐 아니라 언해본들이 있어 이들과의 비교·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어의 변천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차자표기 연구사는 남풍현(1990), 이승재(1989), 이승재(1995), 정재영(1997), 정재영(2003) 등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음독구결 연구사는 김두찬(1987), 남풍현(1999), 남경란(2001ㄴ), 남경란(2005ㄷ), 이전경(2001), 김홍석(2002), 고정의(2004) 등에서 일부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참조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음독구결 관련 논저들을 연구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음독구결 자료의 발굴과 소개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음독구결 자료로는 『계초심학인문』, 『고봉화상선요』,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본들,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능엄경』 이본들, 『대승기신론소』, 『대혜보각선사서』, 『범망경』 이본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법화경』 이본들, 『불설대목련경』, 『불설사십이장경』 이본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이본들, 『선가귀감』, 『염불작법』, 『영가진각선사증도가』, 『원각경』 이본들, 『육조대사법보단경』 이본들, 『지장보살본원경』, 『직지심체요절』, 『치문경훈』 등의 불경 자료들과 『경민편』, 『곡례유이(曲禮幼肄)』, 『논어합부(論語合部)』(필사본), 『논용학정문(論

庸學正文)』(필사본), 『달도집주대전십이칙』, 『도리도표(道里圖標)』, 『동몽선습』, 『동의수세보원』, 『동자필습』, 『동자필습』, 『맹자언해』, 『소학제가집주』 등의 유경 자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업적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최범훈(1972)를 시작으로 음독구결의 새로운 자료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심재기(1976), 박희숙(1976ㄱ), 박희숙(1976ㄴ), 안병희(1976ㄱ), 안병희(1977), 박병채(1977), 유탁일(1977), 최범훈(1978), 박희숙(1978)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범훈(1972)의 "'口訣' 硏究"는 1766년에 필사된 『논어합부』와 1905년에 필사된 『논용학정문』을 대상으로 서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구결 유형을 형태적으로 비교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이 논문은 비록 조선 후기의 필사 자료에 대한 글이지만 음독구결 분야의 가장 이른 시기의 논문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심재기(1976)는 장곡사 소장 『법화경』의 <권2>를 소개한 글이고, 박희숙(1976ㄱ)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원각경』, 『육조단경』 등 조선 초기에 간행된 음독구결 자료 4종 12책을 소개한 글이며, 박희숙(1976ㄴ)은 『예기집주대전』과 『예기』에 사용된 구결을 소개한 글이다. 또 안병희(1976ㄱ)은 일본 동경 존경각 소장판 『동몽선습』에 나타나는 음독구결을 소개한 글이며, 안병희(1977)는 조선시대 간행된 음독구결 자료 『서전대문』, 『시정문』, 『정속언해』, 『계초심학인문』 등 13종을 바탕으로 자료를 소개한 글이다. 박병채(1977)는 『역대전리가』에 사용된 음독구결을 소개하고 이들을 품사별로 활용형과 곡용형으로 나누어 살핀 글이고, 유탁일(1977)은 조선시대 초기의 불경 자료 가운데 『원각경』, 『대승기신론소』, 『능엄경』, 『법화경』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글이다. 최범훈(1978)은 우암 송시열 발문이 있는

『동몽선습』의 음독구결을 소개하고 이를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살핀 글이고, 박희숙(1978)은 안동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음독구결을 소개하고 이를 종로도서관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구결 및 언해본 한글 구결과 비교, 검토한 글이다.

2.2. 1980년대

1980년대에 음독구결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한 대표적인 논저로는 김두찬(1985), 김두찬(1987ㄴ), 김두찬(1989ㄱ), 김두찬(1989ㄴ), 홍윤표(1986), 이덕홍(1987), 박희숙(1989) 등을 들 수 있다.

김두찬(1985)은 16세기 간행 추정본 『詩正文』의 음독구결을 소개하고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왔던 'ㄲ/ㅐ', '難/羅隱' 등을 고찰한 글이고, 김두찬(1987ㄴ)은 『직지심체요절』의 음독구결 자료를 소개한 글이다. 김두찬(1989ㄱ)은 필사본 음독구결 자료 『몽산법어약록』을 처음 발굴하여 소개한 글이고, 김두찬(1989ㄴ)은 『불설사십이장경』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글이다. 홍윤표(1986)에서는 19세기 음독구결 자료 『소학제가집주』가 소개되었으며, 이덕홍(1987)에서는 규장각 '일사문고본' 『정속언해』의 음독구결 자료가, 박희숙(1989)에서는 강릉 선교민속자료관 소장의 『艶夢謾釋』[2]이 소개되었다.

2.3. 1990년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음독구결의 새로운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발굴,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논저로는 남권희(1993), 남권희(1995), 남권희(1996), 남권희(1997ㄱ), 남권희(1997ㄴ), 남권희(1997ㄷ), 남권희

2) 중국 원대 왕실보의 <西廂記>에 대한 어록해와 구결을 원문 없이 적어 놓은 필사본

(1999)를 꼽을 수 있으며, 남풍현(1990), 이승재(1990), 김정자(1990), 최은규(1993), 박희숙(1993), 한상화(1994), 박진호(1996), 황선엽(1996), 황금연(1997), 남경란(1999ㄷ) 등을 들 수 있다.

남권희(1993)는 고려본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 권1-5』의 구결을 소개한 것이고, 남권희(1995)는 담양 용천사본 『대승기신론소』, 『계초심학인문』, 『염불작법』의 3종을 소개한 것이다. 남권희 (1996)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본 14종을 소개하고 특히 천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기입된 구결을 소개하였다. 남권희(1997ㄱ)는 새로 발견된 고려시대 자료 『능엄경』 '남권희 (나)본'과 『범망경』 '엄인섭 (나)본', 『법화경』 '기림사본'을 학계에 소개하였다. 남권희(1997ㄴ)는 고려말에서 조선 중기까지의 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서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능엄경』 '남권희 (가)본', '남권희 (나)본', '기림사본' 외에도 3종의 이본이 더 소개되었다. 남권희(1997ㄷ)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음독구결 자료들을 집중 소개한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로 소개된 자료는 『능엄경』 2종, 『불설사십이장경』 2종,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법화경』, 『범망경』 5종,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 3종, 『영가진각선사증도가』, 『금강반야바라밀경』 2종 등이다. 남권희(1999)는 조선중기부터 구한말까지의 구결 자료를 집중 소개하고 서지학으로 고찰한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경민편』 2종, 『곡례유이』, 『달도집주대전십이칙』, 『도리도표』, 『동몽선습』 2종, 『동의수세보원』, 『동자필습』, 『맹자언해』 등의 유경 자료 22가지와 『고봉화상선요』, 『대혜보각선사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불설대목련경』, 『선가귀감』, 『지장보살본원경』, 『치문경훈』 등 불경 자료 10가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문헌별 음독구결 자형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음독구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남풍현(1990)는 여말선초에 간행된 '안동본'[3] 『능엄경』과 '남권희본'[4] 『능엄경』, '송성문본' 『능엄경』을 발굴하여 소개한 것이고, 이승재(1990)

는 '엄인섭본'[5] 『범망경』을 발굴하여 소개한 것이다. 김정자(1990)는 '남풍현본' 『법화경』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은규(1993)는 고려시대 간행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구결을 학계에 소개한 것이고, 한상화(1994)는 보물 제959호로 지정된 '기림사본' 『능엄경』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박진호(1996)는 『능엄경』 이본 가운데 규장각 '가람본'과 '일사본'의 서지 사항과 구결을 소개한 것이고, 황선엽(1996)은 규장각 소장 '일사본' 『원각약소주경』의 서지와 구결을 소개한 것이다. 황금연(1997)은 필사본 『여씨향약』의 행간에 달린 구결을 소개한 것이고, 남경란(1999ㄷ)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새로 발견된 '남권희 (다)본'과 '파전 김무조본'을 학계에 소개한 것이다.

음독구결에 대한 연구는 199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결자료집> (1)이, 1996년에 (2), (3)이 한국학자료총서로 간행됨으로써 고조되었다. <구결자료집> (1)은 남풍현(1990)에서 소개되었던 '안동본'과 '남권희본'이, <구결자료집> (2)는 한상화(1994)에서 소개했던 '기림사본' 『능엄경』이, <구결자료집> (3)은 남풍현(1990)에서 소개했던 '송성문본' 『능엄경』의 원본들이 그대로 영인되어 있어 음독구결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4. 2000년대

2000년대에는 『경민편』, 『고봉화상선요』, 『근사록』, 『금강반야바라밀경』, 『능엄경』, 『몽산화상육도보설』, 『범망경』, 『법화경』, 『부모은중경』,

3) 이 판본은 현재 남풍현 소장이다.
4) 이후 '남권희본'은 동일한 이본이 4종 더 발굴되어 현재 이 판본은 '남권희 (가)본'이라 불리고 있다.
5) 이후 '엄인섭본'은 동일한 판본이 1종 더 발굴되어 현재 이 판본은 '엄인섭 (가)본'이라 불리고 있다.

『영가진각선사증도가』, 『육조대사법보단경』, 『자비도량참법』, 『주역대문』 등의 음독구결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소개한 대표적인 논저로는 고정의(2005), 고정의(2006ㄱ), 김남균(2000), 김지오(2005), 남경란(2000ㄱ), 남경란(2002), 남경란(2005ㄷ), 남경란(2006), 남경란(2007), 남권희(2002), 남권희(2003), 남권희(2005), 박부자(2000), 이전경(2001), 정은영(2005), 정재영(2006ㄱ), 정재영(2006ㄴ) 등을 들 수 있다.

고정의(2005)는 17세기 후반 내지 18세기의 음독구결을 보여주는 『근사록』 이본 5종을 소개한 것이고, 고정의(2006ㄱ)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음독구결을 보여주는 『고봉화상선요』 이본 6종 8권을 소개한 것이다. 김남균(2000)은 우왕 13(1387)년에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것이고, 김지오(2006)는 전주 팬아시아 종이박물관 소장 『법화경』과 소곡본 『법화경』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것이다. 남경란(2000ㄱ)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남권희 (라)본'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것이다. 남경란(2002)은 『법화경』 이본 가운데 '영남대 소장본'을, 남경란(2005ㄷ)에서는 『범망경』 이본 가운데 '엄인섭 (나)본'과 『법화경』 이본 가운데 '백두현본'을 소개한 것이다. 남경란(2006)은 『육조대사법보단경』 이본 가운데 '영남대 (가), (나)본' 이외의 이본 7종을 소개한 것이고, 남경란(2007)은 개인소장 고려본 『자비도량참법』의 음독구결을 학계에 소개한 것이다. 남권희(2002)는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시대의 모든 기록 자료를 체계화한 것으로 고려시대 음독구결 자료 전반에 걸쳐 소개하였으며, 남권희(2003)는 『경민편』 이본 11종을 학계에 소개하고 이 가운데 16세기 간행 추정되는 '개인소장 (가), (나)본'과 '동경대 소장본'에 사용된 구결을 소개한 것이다. 박부자(2000)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영가증도가』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것이고, 이전경(2001)은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본 가운데 '연세대 소장본'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것이다. 정은영(2005)은 『몽산화상육도보설』 이본 6종의 음독

구결을 소개한 것이고, 정재영(2006ㄱ)은 불갑사 사천왕상의 복장물에서 발굴된 『부모은중경』의 음독구결을 소개한 것이다. 정재영(2006ㄴ)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형사본 『금강경』을 소개한 것이다.

3. 음독구결의 연구 성과

197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음독구결 연구는 처음에는 문자론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세분화되어 구결 자형의 본자와 그 독법, 분포와 결합유형, 표기법과 문법의 특징 등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구결 자형에 대한 고증과 형태의 기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구결의 전반적인 정리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아울러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독구결 자형과 문법의 특징들을 체계화한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음독구결의 연구 성과를 (1) 문자론적 연구, (2) 형태·통사론적 연구, (3) 기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1. 문자론적 연구

3.1.1. 1970년대

1970년대 들어와서 구결연구의 새로운 관심이 음독구결에 대한 문자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논저로는 최범훈(1972), 최범훈(1978), 최범훈(1979), 박병채(1977), 박희숙(1976ㄱ), 박희숙(1976ㄴ), 박희숙(1978), 안병희(1976ㄱ), 안병희(1977), 유탁일(1977)

등을 들 수 있다.

최범훈은 (1972) 논문에서 구결 유형을 형태적으로 비교하여 도식화하였으며, 약체자로 기입된 음독구결 자형 148종을 조사, 어미 접미사별로 분류하여 자형의 독음과 본자를 추출하였다. 또 최범훈(1978)에서는 우암선생의 발문이 있는 『동몽선습』을, 최범훈(1979)에서는 『맹자집주』의 구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박희숙은 (1976ㄱ)에서 19세기 간본인 『예기집주대전』과 『예기』에서 음독구결 자형을 추출하고 이 자형들이 분포된 결합유형을 통해 그 용법을 밝혔으며, (1976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원각경』, 『육조단경』 등 조선 초기에 간행된 자료 4종 12책을 대상으로 문자 체계와 새로 찾은 38자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1978)에서는 '안동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묵서로 기입된 음독구결 자형 45개를 용례를 바탕으로 독음을 분석하고 구결 표기에 차용된 한자와 구결의 특징을 밝혔다. 안병희는 (1976ㄱ)에서 일본 동경 존경각 소장판 『동몽선습』에 나타나는 구결의 자형을 소개하고 분석하였으며, (1977)에서는 음독구결에 사용된 구결 자형들을 훈독자와 음독자로 나누어, 훈독자 13개와 음독자 96개의 독음과 자체(字體)에 대하여 세밀하게 정리하여 후학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유탁일은 (1977)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불경 자료 가운데 『원각경』, 『대승기신론소』, 『능엄경』, 『법화경』의 음독구결을 분석하여 약체자로 쓰인 구결 자형들의 본자와 그 독음을 추정하였다.

3.1.2. 1980년대

이 시기는 특히 김두찬(1987ㄱ), (1987ㄴ), (1989ㄱ), (1989ㄴ)에 의해 많은 자형들이 밝혀지고 결합유형의 목록이 체계화된 시기였으며, 그 외 김완진(1985)이 있다.

김두찬(1987ㄱ)은 '안동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바탕으로 58개의

자형과 277개의 결합유형들을 검토하여 논증으로 삼았는데, 이는 음독구결 관련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는 부록으로 '안동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영인되어 있다. 김두찬(1987ㄴ)은 고려본 『직지심체요절』을 대상으로 103개 자형의 독음과 본자를 추정하여 목록화하고 결합유형들을 제시한 글이고, 김두찬(1989ㄱ)은 필사본 『몽산법어약록』의 구결을 기능별로 체계화한 글이다. 또 김두찬은 (1989ㄴ)에서 범우사 윤동두 씨 소장의 『불설사십이장경』의 구결을 결합유형별로 목록화하고 이를 기능별로 체계화하였다. 김완진(1985)은 차자 표기 가운데 특이한 음독자 6개[尸, 叱, 只, 支, 尒, 𠂉]와 특이한 훈독자 4개[珍, 冬, 於, 矣]를 대상으로 자형의 쓰임과 독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한 글이다.

3.1.3. 1990년대

1990년대는 『능엄경』과 『범망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저들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법화경』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원각약소주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구결자료집> (1), (2), (3)이 한국학자료총서로 간행되었는데 이후 몇 년간은 『능엄경』 이본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았다. 대표적인 논저로는 김정자(1990), 남풍현(1990), 이승재(1990), 최은규(1993), 한상화(1994), 남풍현(1995), 이승재(1995), 박성종(1996), 박진호(1996), 백두현(1996), 정재영(1996ㄴ), 황선엽(1996), 남권희(1997ㄱ), 남경란(1997ㄱ), 남경란(1997ㄴ), 정호반(1997), 남경란(1998), 손명기(1998), 남경란(1999ㄱ), 남경란(1999ㄴ), 남경란(1999ㄷ)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자(1990)은 '남풍현본' 『법화경』을 대상으로 문자 체계를 밝히고 결합유형을 분석하여 논증의 자료로 삼았는데 이는 음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석사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풍현

(1990)은 '남풍현본', '남권희(가)본', '송성문본'의 구결을 대조하고, 그 표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자론적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표기법은 크게 문자 체계와 그 운용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특히 문자 체계는 ① 정해체(正楷體)와 약체가 함께 쓰인 것, ② 같은 차자의 앞을 따느냐, 뒤를 따느냐에 따라서 자형이 달라지는 것, ③ 같은 차자의 약체가 여러 이형으로 바뀐 것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차자의 운용은 ① 생략 표기, ② 음의 첨기, ③ 대표음의 전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법은 음독구결 연구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승재(1990)는 '엄인섭 (가)본' 『범망경』을 대상으로 음독구결 자형 43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독음과 정해자를 밝혀 문자 체계를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고, 최은규(1993)는 성암박물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음독구결 자형과 결합유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한상화(1994)는 '기림사본' 『능엄경』을 대상으로 문자 체계를 밝히고 결합유형 695개를 제시하여 논증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남풍현(1995)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안동본(현 남풍현본)'[6]의 형태서지를 소개하고 자료에 나타나는 음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결합유형의 특징을 자세히 살핀 것이고, 이승재(1995)는 '남권희 (가)본' 『능엄경』의 형태서지와 음독구결의 문자 체계 및 결합유형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다. 박성종(1996)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송성문본'의 해제를 한 것이다. '송성문본'과 '기림사본'의 구결을 대조하면서 문자 체계와 운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송성문본' 구결의 표기체제가 매우 정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음독구결의 표기체제가 고려시대에 비해 정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재영(1996ㄴ)에서는 '기림사본'의 해제를 통해 책의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기입된 구결의 성격이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구결 자료를 다룰 때는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

6) 예전에는 '안동본' 또는 '박동섭본'으로 불렸던 자료이다.

적하였다. 특히 '기림사본'에는 경주 일원의 경상도 지역 방언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권 2>와 <권 3>에 사용된 '-殷ㅜ'을 들었다. 언해본의 '-언뎡'이 항상 '-殷ㅜ(-은뎡)'으로 표기되는바 모음 '어'와 '으'를 구별하기 힘든 방언이 반영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기림사본'에 사용된 '-ᄯᅴ ㄴ'에서의 '-ㅓ ㄴ'이 15세기 '-거늘' 문법화 과정의 단초라 지적하였다. 황선엽(1996)은 규장각 소장 '일사본' 『원각약소주경』의 자형을 밝혀 논증의 자료로 삼은 것이고, 남권희 (1997ㄱ)은 '엄인섭(나)본'과 '계대본' 『범망경』 등의 문자 체계와 독음을 밝힌 것이다. 남경란(1997ㄱ)과 (1997ㄴ)은 '남권희 (가)본' 『능엄경』을 대상으로 하여 구결 자형과 1675개의 결합유형 및 결합유형의 출현 빈도를 제시하여 논증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정호반(1997)은 '송성문본' 『능엄경』과 '기림사본' 『능엄경』의 구결 자형을 비교하고 '송성문본'의 결합유형 658개를 제시하여 논증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남경란(1998)은 '남권희 (나)본' 『능엄경』의 구결 자형과 636개의 결합유형을 소개하고, 새로운 자형 7개의 쓰임을 밝힌 것이고, 손명기(1998)는 '박동섭본', '남권희 (가)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향찰과 구결의 차자를 비교한 것이다. 남경란(1999)은 '남권희 (다)본' 『능엄경』과 '파전본' 『능엄경』을 소개하고 이들 자료의 구결 자형과 '파전본'의 결합유형 376개를 제시하고, 새로운 자형 15개의 쓰임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석독 및 음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통시적 변천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백두현(1996)이 그것이다. 백두현은 (1996)에서 그 당시까지 발굴된 음독구결 자료를 소개하고 문자 체계를 석독 구결과 비교하여 목록화하였으며, 석독 구결 자형과 음독구결 자형을 비교하여 그 기능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석독 및 음독구결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

3.1.4. 2000년대

2000년대에는 『능엄경』과 『범망경』에서 시각을 돌려 『고봉화상선요』, 『근사록』, 『금강반야바라밀경』, 『능엄경』, 『몽산화상육도보설』, 『범망경』, 『법화경』, 『불설사십이장경』, 『영가진각선사증도가』, 『육조대사법보단경』, 『자비도량참법』, 『주역대문』 등 다양한 음독구결 자료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논저로는 김남균(2000), 남경란(2000ㄱ), 박부자(2000), 전혜숙(2000), 남경란(2001ㄱ), (2001ㄴ), 이전경(2001), 남경란(2002ㄴ), 남경란(2002ㄷ), 남경란(2003ㄴ), 고정의(2005), 김지오(2005), 남경란(2005ㄷ), 정은영(2005), 고정의(2006), 김정아(2006), 남경란(2006), 남경란(2007)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남경란(2001ㄱ), 이전경(2001)은 박사학위논문이고, 김지오(2005), 정은영(2005)는 석사학위논문이다.

김남균(2000)은 '천로해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소개하고 92개 구결 자형의 목록을 제시하고 결합유형의 특징을 밝혀 논의의 자료로 삼은 것이며, 남경란(2000ㄱ)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남권희 (라)본'의 구결 자형과 결합유형을 밝혀 논의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박부자(2000)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영가진각선사증도가』에 나타나는 구결 자형 53개를 밝혀 논의의 자료로 삼은 것이고, 전혜숙(2000)은 '김두찬 소장본' 『주역대문』을 대상으로 구결 자형 51개와 문자 체계를 살핀 것이다. 남경란(2001ㄱ), (2002ㄷ)은 『불설사십이장경』 '원암사 (가)·(나)·(다)본'과 '회암사 (가)·(나)본'의 음독구결 자형과 문자 체계 및 독음을 밝힌 것이다. 남경란(2001ㄴ)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남권희 (가), (나), (다), (라)본'과 '파전 김무조본', '송성문본', '해인사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총자형 148개를 분류하여 그 독음을 밝히고 결합유형과 빈도를 제시하여 논의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이전경(2001)은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본 가운데 '연세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여 자형과 결합유형을 밝혀 논의의 자료로 삼은 글이다. 남경란(2002ㄴ)은 『법화경』 이본 가운

데 '영남대본'의 음독구결 자형과 문자 체계 및 독음을 밝힌 것이고, 남경란(2003ㄴ)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 가운데 『능엄경』 이본 11종, 『범망경』 이본 5종, 『불설사십이장경』 이본 5종, 『법화경』 이본 3종의 문자 체계를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다. 고정의(2005)는 17세기말 내지 18세기의 유교 구결을 보여 주는 『근사록』 이본 5종에 사용된 구결 자형 57종 80자를 밝히고 총 결합유형 447개를 밝혀 표기의 양상과 특징을 살핀 것이고, 김지오(2005)는 전주 '팬아시아 종이박물관 소장본' 『법화경』과 '소곡본' 『법화경』을 대상으로 음독구결 자형 59개(팬아시아본)와 70개(소곡본)를 밝혀 논의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음독구결 자형 59개를 중심으로 문자론적인 측면에서 구결의 쓰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은영(2005)은 『몽산화상육도보설』 이본 가운데 '규장각 소장 (가), (나), (다)본'과 '경북대 소장본', '영남대 소장본', '계명대 소장본'을 대상으로 음독구결 총자형 81개를 밝혀 논의의 자료로 삼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음독구결 자료에서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논의의 관점이 다른 자형 8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합유형 440개와 각 이본별 구결의 대응 양상을 목록화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남경란(2005ㄷ)은 남경란(2001ㄴ)을 바탕으로 하고, 여말선초에 간행된 자료 『능엄경』 이본 11종, 『범망경』 이본 5종, 『불설사십이장경』 이본 5종, 『법화경』 이본 3종의 총 24종, 77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에 기입된 구결 자형과 결합유형의 분포를 조사하고, 자형과 결합유형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말선초 음독구결에 사용된 111개의 구결 자형의 쓰임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능엄경』 이본 11종, 『범망경』 이본 5종, 『불설사십이장경』 이본 5종, 『법화경』 이본 3종의 결합유형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고정의(2006)는 15세기부터 17세기의 구결을 보여주는 『고봉화상선요』 이본 6종에 사용된 구결 자형 87개와 총 결합유형 560개를 밝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김정아(2006)는 팬아시아 종이박물관 소장 『법화경』 권3의 음독구결을 중심으로 문자 체계와

구결 자형의 쓰임, 그리고 간경도감본 한글구결과 비교하여 '팬아시아본' 『법화경』 권3의 음독구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힌 것이다. 남경란(2006)은 『육조대사법보단경』 이본 가운데 '영남대 (가), (나)본' 이외의 7종을 대상으로 이 자료에 사용된 구결 자형과 문자 체계 및 독음을 밝힌 것이다. 남경란(2007)은 개인 소장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음독구결 자형 77개와 문자 체계를 밝혀 구결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구결 자료를 주로 문자론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라 하겠다.

3.2. 형태·통사론적 연구

3.2.1. 1970년대

이 시기는 음독구결의 형태·통사론적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안병희(1977)를 들 수 있다.

안병희(1977)는 조선시대 간행된 음독구결 자료 『서전대문』, 『시정문』, 『정속언해』, 『계초심학인문』 등 13종을 바탕으로 구결의 표기법을 고찰한 저서이다. 이 글에서는 구결을 조사류 표기와 동사 및 계사류의 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가운데 조사류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다시 나누고 동사 및 계사류의 표기는 어간과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격조사는 주격, 속격, 처격, 대격, 구격, 공동격, 호격의 7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보조사는 [은·는], [도·두], [ᄯᅳᆫ·이ᄯᅳᆫ] 등 13가지로 구분하였고, 선어말어미는 11가지로, 어말어미는 40가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저서는 음독구결을 연구하는 후학들뿐만 아니라 중세한국어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지침이 되고 있다.

3.2.2. 1980년대

이 시기는 음독구결에 대한 형태·통사론적인 연구는 김두찬(1986), 김두찬(1987ㄱ), 남풍현(1987), 이덕흥(1987)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두찬(1986)은 구결 어미 '羅叱多'를 중세국어 '-랏다', '시닷다', '리랏다', '시리랏다' 등과 더불어 그 의미 기능을 밝힌 것인데, 이 글에서는 '羅叱多'와 '-랏다'류의 의미 기능은 새로운 의미에서 [터득됨]에 흥분한 심리현상을 토로하는, 의도법 감탄형에서 재확인하는 서법이라 하였다. 김두찬(1987ㄱ)은 음독구결 관련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동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바탕으로 58개의 자형과 277개의 결합유형들을 검토하여 논증으로 삼았는데, 구결을 기능에 따라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고, 어미는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로 나누었으며, 연결어미는 의미와 기능에 따라 다시 설명, 병렬, 조건, 대조, 양보, 인과, 가상, 역접의 8가지로 분류하여 결합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종결어미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특히 의문형은 판정, 반문, 반어의문문으로 나누고, 감탄형은 '-라'류, '-뎌'류, '-녀'류로 나누어 '안동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사용된 구결의 기능을 체계화하였다. 남풍현(1987)은 중세국어의 과거시제어미 '-드-'를 음독구결 자료 『능엄경』과 『법화경』에 사용된 용례를 바탕으로 논의한 것이고, 이덕흥(1987)은 규장각 소장 '일사문고본' 『정속언해』에 사용된 구결을 중심으로 조사류, 동사류, 서술격어미 <이다>류로 구분하여 『문법적인 특징을 살핀 것이다.

3.2.3. 1990년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승재(1990), 이승재(1993), 한상화

(1994), 김두찬(1995), 남풍현(1995), 이승재(1995), 정재영(1995), 김영욱(1996ㄱ), 김영욱(1996ㄴ), 박진호(1996), 이승희(1996), 정재영(1996ㄱ), 정재영(1996ㄷ), 김두찬(1997), 남경란(1997ㄱ), 이용(1997), 정호반(1997), 이용(1998), 남경란(1999), 남풍현 (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한상화(1994), 남경란(1997ㄱ), 정호반(1997)은 석사학위논문이다.

이승재(1990)는 엄인섭 (가)본 『범망경』을 대상으로 음독구결 자형 '厶', '口', '果', '斤', '八' 등 43개의 형태론적 분포를 체계적으로 살핀 것이고, 이승재(1993)는 여말선초의 음독구결 자료인 『능엄경』, 『범망경』, 『불설사십이장경』, 『남명집』, 『직지심체요절』, 『법화경』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사적 의의가 있는 결합유형들을 제시하여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승재(1993)에서는 선어말어미 '-거-'는 '厶'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나 '口/ㅁ'로도 표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결합유형 'ㅅ가ㅈ'는 [비교]를 전제로 하는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구결 자형의 독음을 추정하는 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분야의 지침이 되고 있다. 한상화(1994)는 처음으로 구결의 기능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여기서는 '기림사본'의 구결 용자와 형태소 전부가 연구되었는데 특히 '기림사본'의 결합유형 695개를 제시하여 논증의 자료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림사본'에 사용된 구결들을 조사류, 어미류, 접사류로 분류하여 그 기능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김두찬(1995)은 구결 결합유형 'ㅅ가ㅈ'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ㅅ가ㅈ'의 의미 기능을 해독할 때 지금 현대어로는 '-자마자-(잠)깐', 또는 '-자마자-(이)미'로서 푸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남풍현(1995)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안동본'을 해제한 것으로 구결의 표기법을 문자 체계와 그 운용법으로 나누어 살핀 글이다. 이 가운데 특히 운용 양상을 생략표기, 첨가표기, 대표음의 전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승재(1995ㄴ)는 『능엄경』 '남권희 (가)본'의 해제를 통해 음독구결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주었다.

특히 자형 '衤'가 '衣'자에서 온 것인 바 '衣'의 음을 딴 것은 '의'로, 새김 '옷'에서 '오'를 딴 것은 '오'로 읽을 수 있다고 하여 '衤七ㅣ'는 '엇다' 혹은 '옷다'로 읽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확인법에 사용되는 '去'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去, 厶, 衤'로 교체되고 통사론적 조건에 따라 'ㅋ, ㅗ'로 교체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재영(1995)은 고려본 구결 자료들을 대상으로 고려시대 의문법을 고찰한 것으로 구결문에서 '-ㅋ, -可, -ㄲ'는 판정의문에, '-口, -午, -ㄱ'는 설명의문에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음독구결 자료에서 '-ㄴ뎌[-ㄱ ホㅗ, -ㄱ 矣ㅗ, -ㄱ 矣ㅣ...]'와 '-ㄹ뎌[-乙ㄲ, -乙底, -乙入ㅗ...]' 의문형은 주로 15세기 '-ㄴ다', '-ㄹ다'에 직접적으로 대응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음독구결 자료에서 '-七ホㅗ'가 수사의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토로 '-オヒㄲ', '-チ厶ヒㄲ'는 문맥상 수사의문의 반어적 표현에 사용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영욱(1996ㄱ)은 기림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선어말어미 '-거/어-'의 교체 양상에 대해 살핀 것으로 이 글에서는 선어말어미로 확인된 '-ㅗ-'는 타동성표지에,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去-'는 비타동성표지에 사용됨을 밝혔다. 김영욱(1996ㄴ)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14세기 문법 형태의 '-ㅋ/七{의/ㅅ}'의 교체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 김영욱은 동작주의 자질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의 현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ㅋ/七'의 교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 규칙을 제안하였다. 박진호(1996)는 『능엄경』 이본 가운데 규장각 소장의 '가람본'과 '일사본'을 대상으로 논의한 것이다. '가람본'에 사용된 결합유형 가운데 '火七'은 언해문의 '곳/옷'과 대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언해문의 '-디위'에 대응하는 '-ㅗㅋ'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또 '일사본'의 결합유형 가운데 'ソ入全可'가 중단형어미 '-다가'의 기원을 알려주는 용례로 제시하면서 '-다가'가 기원적으로는 단일형태소가 아니라 회상법 선어말어미 '-ㄷ/드-'가 들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승희(1996)은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감동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

다. 정재영(1996ㄱ)은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 등의 『범망경』 이본을 대상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 사용되는 주격 'ㅣㅅ'가 사용되었음과 15세기의 집단곡용처럼 명사구를 나열할 때는 마지막 명사구에까지 '-ㅣ'나 'ㅣㅇ乃'가, 동사구에는 '-ㅿ乃'가 현토되어 있음을 밝혔다. 정재영(1996ㄷ)은 향가와 석독 구결 및 음독구결에 사용된 종결어미 '-ㅛ'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향가와 석독 구결에는 '-遣賜立', '-遣只賜立', '-ㅁㅅㅎㅛ', '-ㅌㅛ' 등이 쓰였으며, 음독구결에는 'ㅛ', 'ㅅㅛ', 'ㅅ小ㅛ' 등이 쓰였다고 결론지었다. 김두찬(1997)은 음독구결에 사용된 어미 'ㅅㅌㅣ'의 의미 기능을 밝힌 것으로, 'ㅅㅌㅣ'는 'ㅅㄱㅣ十'와 'ㅅ乙ㅣ十ㄱ'을 거쳐 'ㅅ乙田'으로 개신되었으며 의미 기능은 추정조건의 어미라 하였다. 남경란(1997ㄱ)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남권희 (가)본'을 대상으로 음독구결에서의 '-ㅣ'형 종결어미의 쓰임을 연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결 자형과 1675개의 결합유형을 제시하고, 종결어미 'ㅣ'형을 'ㅅㅣ', 'ㅢㅣ' 및 그 밖의 '-ㅣ'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배열 순서를 밝혔다. 이용(1997)는 차자표기에 사용된 '乙'을 고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림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에 향가나 이두의 연결어미 '-乙'에 해당하는 형태의 표기가 '-ㅌ', '-乙', '-ㄱ乙'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들 형태가 주로 확인법 선어말어미 '-ㅿ/ㅈ-'와 결합함을 설명하였다. 정호반(1997)은 '송성문본' 『능엄경』을 대상으로 음독구결의 조사를 연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송성문본' 『능엄경』에 사용된 조사를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조사는 주격, 대격, 처격, 속격, 구격, 공동격, 호격으로, 보조사는 주제의 보조사, 동일의 보조사, 강조의 보조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용(1998)은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거든'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미화 측면에서 향찰과 구결을 바탕으로 살핀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음독구결에 사용된 'ㅿㅅㄱ'이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거든'으로의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남경란(1999)은 『능엄경』 이본 가운데 '남권

희 (가)본', '남풍현본', '해인사 소장판본', '송성문본', '파전본'의 <권8>을 언해본과 비교, 대조하여 구결의 기능과 의미를 살핀 것이다. 남풍현(1999)은 고려시대 음독구결에 사용된 'ᄉᆞᆫᄉᆞᆯᄐᆡ/ᄒᆞ여샷다'와 'ᄆᆞᅀᆞ/코볼라'의 쓰임과 형태소 분석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ᄉᆞᆫᄉᆞᆯᄐᆡ/ᄒᆞ여샷다'를 분석하여 '분명 --을 하시는구나', '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 토가 대문의 내용을 주해해 가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적절함을 확인하고 그에 감동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았다. 아울러 'ᄆᆞᅀᆞ/코볼라'는 '꼭(마땅히) 하고 싶구나'의 뜻으로 당위와 원망의 의미를 지닌 권고적 명령형에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3.2.4. 2000년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남균(2000), 남풍현(2000), 이금영(2000ㄱ), 황국정(2000), 이승재(2000ㄱ), 이승재(2000ㄴ), 이승재(2000ㄷ), 김유범(2001ㄱ), 남경란(2001ㄷ), 이전경(2001), 정재영(2001), 권용경(2002), 김서형(2002), 김홍석(2002), 남경란(2002ㄴ), 이승재(2002), 남경란(2003ㄱ), 황선엽(2003), 김홍석(2004), 남미정(2004), 하귀녀(2004), 고정의(2005), 남경란(2005ㄱ), 남경란(2005ㄴ), 정은영(2005), 김지오(2006), 정재영(2006ㄴ), 남경란(2007), 박진호(2007), 남경란(2008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금영(2000ㄱ), 이전경(2001), 김홍석(2002)은 박사학위논문이고, 김남균(2000), 정은영(2005)은 석사학위논문이다.

김남균(2000)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이본 가운데 '천로해본'을 중심으로 음독구결의 조사를 연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천로해본' 『금강반야바라밀경』에 사용된 조사를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조사는 주격, 대격, 처격, 속격, 구격, 공동격, 호격으로, 보조사는 주제의 보조사, 동일의 보조사, 강조의 보조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남풍현(2000)은 음독구결에 사용된 연결어미 '-면'의 발달을 논의한 것으로, 음독구결에서의 '-ᄀᆞᆫ(ㄴ)'의 '-ㄴ'을 보조사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며'를 병렬연결어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조건법어미가 아닌 다른 성격, 즉 부사형 어미와 관련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금영(2000)은 선어말어미 '-거/어-'를 통시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음독구결에서의 '-ㅿ/ᄋᆞ-'의 분포와 교체 양상과 '-ㅿ/ᄋᆞ-'의 의미 기능, 그리고 '-ㅁ-'의 분포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이승재(2000ㄱ)는 구결에 사용된 존경법 선어말어미 '-ᄒᆞ/ㅎ'의 형태음소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한 것으로, '-ᄒᆞᅀᅳ/ㅎㅡ'가 '-ᄉᆞᆷ(샤)'로 축약된 것은 고려말의 음독구결 자료에서부터라고 지적하였다. 이승재(2000ㄴ)는 차자표기 중심으로 국어 문자체계의 발달을 논의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특히 구결의 발달 과정이 13세기 후반까지의 석독 구결 단계, 13세기 말엽부터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중반까지의 다양한 음독구결 단계, 15세기 중반 이후 언해본의 구결로 통일된 음독구결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승재(2000ㄷ)는 이두, 구결, 향찰 등 차자표기 자료의 문장표기에서 표기법상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격조사 형태를 확정, 정리한 것으로, 격조사를 주격, 대격, 처격, 속격, 구격, 동반격, 호격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황국정(2000)은 향가와 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속격 어미가 실현된 명사구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구결문에서의 속격 '-ᄂᆞᆫ'은 선행하는 명사가 후행하는 명사구에 대해 목적어 논항으로 실행될 때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김유범(2001ㄱ)은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와 구결자 '下'의 독법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남경란(2001ㄷ)은 여말선초 음독구결에 사용된 '-可', '-ㅿ', '乃', '火' 등 구결 자형 11개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자형 '火'의 논의에서는 남경란(2001ㄴ:183-185)에서 제시했던 3가지 구문을 바탕으로 결합유형 '火ᄂᆞᆫ'이 이른 시기 이두[대명률]와 구결 자료[능엄경]에 나타나는 '佳ᄂᆞᆫ(갓)'과 언해 자료에 나타나는 '붓/봇', '곳/옷'과

관련이 깊으며, 한자 '則, 卽'이 지니고 있는 부사의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이전경(2001)은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본 가운데 '연세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여 15세기 불경의 구결 표기법을 연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5세기 불경의 구결 표기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그 각각의 표기법을 구결 문자 체계와 그 운용 양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부록으로 구결 자형과 결합유형의 목록과 입력 자료 및 난독자 목록까지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정재영(2001)은 국어 감탄문에서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논의한 것이데, 이 글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근대전환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감탄법 종결어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권용경(2002)은 '-ㄴ(ㅅ)'의 유형적 분류를 논의한 것인데, 이 글에서는 구결에 사용된 '-ㄴ(ㅅ)'의 유형을 나누어 중세국어 사이시옷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김서형(2002)은 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의 연결어미 '-아'와 '-고'를 연구한 석사논문이다. 이 글에서는 음독구결에서의 '-ㅇ'와 '-ㅁ'의 통합 관계와 호응 관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김홍석(2002)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 『능엄경』의 서법을 연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능엄경』의 서법을 종결어미에서의 서법과 선어말어미에서의 서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종결어미는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으로 나누고, 선어말어미는 의도법, 확실법, 추측법, 현실법, 설명법, 회상법, 감동법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폈다. 남경란(2002ㄴ)은 『법화경』 이본을 대상으로 음독구결 자형 'ㅱ', '上', '土', '白'의 기능과 의미를 통시적으로 살핀 것으로, 이 가운데 특히 '土'와 '白'의 관계에서 "白->(土巴)->土"로 변화하였을 가능성과 "白->土"로 변화하였을 가능성, "白->(土巴)->土", 그리고 "白->土"의 변화가 공존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승재(2002)는 구결 자료에서의 'ㄱ'약화와 탈락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음독구결에 사용된 '-ㅁ斤'은 '-ㅁ斤>-ㅁㅅㄱ>-ㅁㄱ>-ㅁ'의 변화를 겪고 '-ㅇ斤'은 '-ㅇ斤>-ㅇㅅㄱ>-ㅇㄱ>-ㅇ'의 변화를 겪어 '-ㄱ->

-ㅎ- > -ㅇ-'의 통시적 약화·탈락이 문증됨을 논의하였다. 남경란(2003ㄱ)은 여말선초 구결 자료인 『능엄경』, 『법화경』, 『불설사십이장경』, 『범망경』을 대상으로 구결 결합유형의 특성을 살핀 것으로, 이 가운데 결합유형 'ᄂᆞᆫᄃᆞᆫ'를 논의 하면서 남경란(2001: 212- 213)을 바탕으로 그 기능과 의미가 '-야(만)'과 같은 의도나 양보의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황선엽(2003)은 석독 및 음독구결에 사용된 자형 'ᄀᆞᆫ'을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석독 또는 음독구결에 사용된 'ᄀᆞᆫ'의 독음을 '근'으로 읽을 수도 있음을 논의하고, 특히 음독구결에 사용된 '-ㅁᄀᆞᆫ', '-ㅈᄀᆞᆫ'이 '계기+조건'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밝혔다. 김홍석(2004)은 이두, 향가, 구결에 사용된 존재의 보조동사 '시'에 대해 통시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음독구결에 사용된 '-ㅅㅡ-'형의 예를 들어 음독구결에서의 '시-'가 존칭이 아닌 평칭이며,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남미정(2004)은 구결에서의 접속어미 '-ㄱㄹ'의 분포와 의미 기능을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ㄱㄹ(늘)'이 선어말어미와의 통합에 있어서 석독 구결에서는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통합하는데 반해 음독구결에서는 차츰 선어말어미 '-거-'와 통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거늘'이 어미구조체 또는 통합형어미로 재구조화되기 시작한 시기라 하였다. 하귀녀(2004)는 중세국어에 보이는 '-곳/옷', '-붓', '-봇'과 구결 자료에 사용된 '-火ㄷ'의 관계를 살핀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결 자료에 사용된 '-火ㄷ'이 중세국어에 보이는 '-붓'의 선대형이며, '-봇'은 '-붓'이 음운 변화를 경험한 형태로, '-곳/옷'은 '-붓', '-봇'의 후대형이라 논의하였다. 고정의(2005)는 17세기 후반 내지 18세기의 음독구결을 보여주는 『근사록』 이본의 여러 가지 어미들의 결합 양상을 논의한 것으로, 이 가운데 특히 "--에 이르기까지"의 의미와 파생부사의 말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된 '尿'와 '尿' 대신 사용된 'ㄴ', 'ㄴㅌ' 등의 예를 통해 '尿'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살폈다. 남경란(2005ㄱ)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형 가운데 특히 'ㅅ'와 'ㅁ'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통시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형 'ㅊ'는 주로 확인의 의미와 부동사 어미의 표기,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에 사용 되며, 'ㅁ'는 주로 확인의 의미, 설명의문형어미, 연결어미 등 두루 사용됨을 밝혔다. 아울러 이 두 자형은 서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형 'ㅜ'와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는데, 이 세 자형 모두는 확인의 의미와 의문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ㅊ'가 '의문의 의미'가 약화되고 'ㅁ'와 'ㅜ'에서는 '확인의 의미'가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남경란(2005ㄴ)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형 가운데 'ㅅ', '隹', 'ㅋ', 'ㅜ'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통시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음독구결에 사용된 자형 'ㅅ'와 석독 구결에 사용된 자형 'ㅅ'의 기능상 차이점을 지적하고 본자가 '只'가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자형 '隹'의 결합유형 '隹ㄷ'이 『대명률』과 『농서집요』에 실현됨을 문증하고 이 '隹ㄷ'이 '火ㄷ', '붓', '봇', '곳/옷'과 관련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지오(2006)는 소곡본 <법화경>의 차자구결을 <법화경 언해>와 비교하여 형태·통사적 차이를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곡본에서 존칭 여격이 실현되지 않음과 경어법(겸양법)과 관련된 선어말어미가 언해본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정은영(2005)은 음독구결 자료 『몽산화상육도보설』 이본을 대상으로 『몽산화상육도보설』 구결의 문법 체계를 밝힌 석사학위논문이다. 이 글에서는 『몽산화상육도보설』에 사용된 구결을 조사류와 어미류로 나누고, 조사는 다시 격조사와 보조사로,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재영(2006ㄴ)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형사본 『금강경』의 육조구결후서(六祖口訣後序)에 기입된 구결을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5세기 정도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독구결 문장과 그에 앞서 기입된 부호구결 문장을 언해본과 비교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남경란(2007)은 고려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을 대상으로 구결의 특징을 논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사용된 구결의 명령법과 의문법을 살폈으며, 호격조사와 확인법 선어말어미

'-ㅿ'의 쓰임을 밝혔다. 박진호(2007)는 음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결합 유형 '-ㄱㅅㅗ'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도치 구문의 조사 '-(이)여'와 음독구결 자료에서의 '-ㄱㅅㅗ'의 출현 양상 및 '-ㄱㅅㅗ'의 내적 구성을 살폈다. 남경란(2008ㄴ)은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형 가운데 특히 'ㅜ'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통시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 자형 'ㅜ'가 호격으로 쓰일 경우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의미 기능이 있으며, 석독 구결에 나타나는 '-ㄴㅜ/ -ㅁㅜ'가 음독구결에 나타나는 '-ᄉᆞᆫ/-ㅅ'의 선대형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3. 기타

이 외에 음독구결과 관련된 논의들은 김영욱(1993), 김무림(1995), 전병용(1995), 홍윤표(1995), 이건식(1996), 권인한(1997), 장윤희(1998), 김무림(1999), 이용(2000), 김유범(2001ㄴ), 황선엽(2002), 김무림(2003), 이승재(2003), 고정의(2004), 이준석(2004), 김영만(2005), 이전경(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홍윤표(1995)는 구결 문법에 대한 단상을 논의한 글이고, 고정의(2004)는 구결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글이다. 이건식(1996)은 컴퓨터 입출력을 위한 구결자의 코드체계에 대하여 논의한 글이고, 이준석(2004)은 유니코드에 제출될 구결자의 방안을 설명한 글이다. 김무림(1995)은 고려시대 자음 체계를 논의한 것이고, 권인한(1997)은 한중 『능엄경』의 음석(音釋)을 비교 색인한 것이다. 김무림(1999)은 고려시대 구결의 한자음을 분석한 글이며, 김무림(2003)은 한자 '內'를 국어 음운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승재(2003)는 음독구결 자료인 『능엄경』의 계통을 이체자를 통해 밝힌 글이고, 김영만(2005)은 구결문과 한문 원문의 문법에 대해 논한 글이며, 이전경(2006)은 구결 사전의 편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글이다.

이 외 김영욱(1993), 전병용(1995), 장윤희(1998), 이용(2000), 김유범(2001ㄴ), 황선엽(2002) 등은 논증 자료로 음독구결을 활용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4. 음독구결 연구의 의의와 전망

지금까지 음독구결에 대한 연구는 문자론적 측면과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15세기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그 동안 밝히기 어려웠던 일부 구결의 문법형태와 음독구결의 문법 정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음독구결 자료는 고려시대의 부호·석독구결 자료와 한글 창제 후에 간행된 한글 구결 자료의 교량적인 위치에 있어, 의미 파악이 쉬운 양질의 음독구결 자료와 15세기의 언해본들과의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과 창제 이후의 언어 변천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에 소개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끈기 있게 연구할 연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아울러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유불경의 많은 음독구결 자료들을 유가와 불가별로 분류·정리해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작업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구결이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계통을 밝히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고정의 2004 :31)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발굴된 음독구결 자료의 원본, 혹은 영인본을 수집, 정리하여 보급하는 일도 시급하다. 나아가 음독구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음독구결을 연구할 수 있는 안내서를 출간하는 것도 역

시 남아 있는 과제이다.

參考文獻

고정의(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12, 5-46.
고정의(2005), 「『近思錄』의 구결 연구」, 『口訣硏究』 14, 5-49.
고정의(2006ㄱ), 「『高峰和尙禪要』의 구결 연구」, 『口訣硏究』 16, 241-279.
고정의(2006ㄴ), 「『誡初心學人文』의 구결에 대하여」, 『人文論叢』 25,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구결학회(2007), 『口訣硏究』 1-18, 태학사.
권용경(1992): 「중세국어 사이시옷에 대한 고찰」, 『국어학논집』 1, 태동문화사, 1-11.
권인한(1997), 「韓中 능엄경 音釋의 比較 索引」, 『울산어문논집』 12, 울산대학교, 257-294.
김남균(2000), 「천로 『금강경』 구결의 조사 연구」, 구결학회 제22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91-129.
김동소(1997), 「수능엄경 권7의 활자본·고려본·목판본의 입겾 비교」, 입겾 연구모임 제31차 발표회 발표요지문, 대구교육대, 1-6.
김두찬(1985), 「『詩正文』의 구결에 대하여」, 『어문연구』 48, 470-485.
김두찬(1986), 「口訣語尾 '-羅叱多(랏다)'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6, 129-157.
김두찬(1987ㄱ), 「직지심체요절의 구결에 대하여」, 『國語學』 16, 국어학회, 125-149.
김두찬(1987ㄴ), 「고려판 남명집의 구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김두찬(1989ㄱ), 「필사본 『몽산법어약록』의 구결에 대하여-새로 발굴된 15세기 구결의 새 자료」, 『국어학논집』 13,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393-427.
김두찬(1989ㄴ), 「『불설이십사장경』의 구결에 대하여」, 『國語學』 18, 64-88.
김두찬(1995), 「口訣語尾 'ㅅ가ㅎ'에 대하여」, 『口訣硏究』 1, 11-44.
김두찬(1997), 「구결어미 'ㅅ ㅏㄴ'에 대하여」, 1997년 여름 구결학회공동발표회 발표요지, 1-15.
김무림(1995), 「高麗時代의 子音體系」, 『國語史와 借字表記』, 素谷 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태학사, 551-566.
김무림(1999), 「高麗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口訣硏究』 5, 75-108.

김무림(2000), 「한자음(漢字音)」, 『새국어생활』 10-4, 139-145.
김무림(2003), 「한자 '內'의 국어 음운사적 고찰」, 『國語學』 41, 123-143.
김서형(2002), 「국어의 연결어미 '-아'와 '고'의 연구-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만(2005), 「구결문과 한문 원문의 문법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31회 전국학술대회발표요지, 1-7.
김영욱(1995), 『문법 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영욱(1996ㄱ), 「14세기 문법 형태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기림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글』 233, 69-104.
김영욱(1996ㄴ), 「14세기 문법 형태 '-ᄒᆞ/ᄂᆞ[의/ㅅ]'의 교체에 대하여」, 『口訣硏究』 2, 243-264
김영욱(1999), 「전기 중세국어의 時相과 敍法」, 『선청어문7』 27, 719-751.
김완진(1985) 「특이한 음독자 및 훈독자에 대한 연구」, 『東洋學』 15, 1-16.
김유범(2001ㄱ), 「선어말어미 {-으시-}의 이형태와 구결자 'ᄀᆞ'의 독법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565-585.
김유범(2001ㄴ),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아(2006), 보물 1153호 『법화경』 권3 음독 구결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32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문, 1-15.
김정자(1990), 「법화경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구결연구-기입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오(2006), 「『법화경』 권3 음독 구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석(2002), 「여말선초 『능엄경』 순독 구결의 서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석(2004), 「存在의 補助動詞 '시-'에 대한 통시적 고찰, 『어문연구』 32, 105-125.
남경란(1997ㄱ), 「고려본 『능엄경』 입겾과 'ㅣ'형 종결법 연구-'(가)본'을 대상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경란(1997ㄴ), 「고려본 『능엄경』의 입겾 자형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17회 공동연구 발표회 논문집, 구결학회.
남경란(1998), 「남권희 (나)본 『능엄경』 입겾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19회 공

동연구 발표회 논문집, 35-54.
남경란(1999ㄱ), 「『楞嚴經(능엄경)』『권 8』의 입겾 연구- 고려본과 조선 초기본을 대상으로-」, 『한국말글학』 16, 129-148.
남경란(1999ㄴ), 「남권희본 『능엄경』의 입겾 자형에 대하여」, 『語文學』 66, 62-100.
남경란(1999ㄷ), 「능엄경 새 자료에 대하여-남권희(다)본과 파전 김무조본을 대상으로」, 구결학회 제21회 공동연구 발표회 논문집, 1-33.
남경란(2000ㄱ), 「'남권희 (라)본' 『楞嚴經(능엄경)』 입겾에 대하여」, 『한국말글학』 17, 111-133.
남경란(2000ㄴ), 「'남권희 (나)본' 『능엄경』 입겾에 대하여」, 『口訣硏究』 6, 87-134.
남경란(2000ㄷ), 「『楞嚴經(능엄경)』 새 자료에 대하여－南權熙(다)본과 坡田本」, 『語文學』 71, 31-68.
남경란(2001ㄱ), 「『능엄경』의 음독 입겾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경란(2001ㄴ), 「음독 입겾의 몇 가지 자형」, 『民族文化論叢』 23, 139-174.
남경란(2002ㄱ), 「『불설사십이장경』 이본의 입겾 연구」, 『語文學』 75, 143-169.
남경란(2002ㄴ), 「『법화경』 입겾의 이본 연구-영남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21, 89-110.
남경란(2002ㄷ), 「려말선초에 간행된 새로운 입겾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자료연구』3, 31-54.
남경란(2003ㄱ), 「여말선초 음독 입겾(口訣)의 제고찰(1)-형태서지와 결합유형」, 『民族文化論叢』 28, 85-193.
남경란(2003ㄴ), 려말선초 음독 입겾(口訣)의 제고찰(2)-음독 입겾의 문자체계」, 『언어과학연구』 27, 115-154.
남경란(2003ㄷ), 『麗末鮮初 音讀 입겾(口訣)의 綜合的考察』,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최종 결과보고서, 1-254.
남경란(2005ㄱ), 「음독 입겾(구결)의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ㅊ, ㅁ를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32, 117-141.
남경란(2005ㄴ), 「음독 입겾(구결)의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ㅅ, 佳, 可를 중심으로」, 『語文學』 90, 21-44.
남경란(2005ㄷ), 『麗末鮮初 音讀 입겾(口訣)의 綜合的考察』, 경인문화사.

남경란(2006), 「『육조대사법보단경』의 구결 연구」, 『口訣硏究』 16, 141-172.
남경란(2007), 「고려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구결 연구」, 『한민족어문연구』, 51, 129-156.
남경란(2008ㄱ), 「음독 입겾 'ㅅ, ㅊ, ㅿ, ㅸ'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통시적 연구」, 『民族文化論叢』 38, 3-26.
남경란(2008ㄴ), 「음독 입겾(구결)의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ㅏ'를 중심으로」, 언어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1-12.
남권희(1993), 「高麗本 『慈悲道場懺法』 卷第一~五와 그 口訣의 紹介」, 『書誌學報』 11, 5-36.
남권희(1994), 「高麗 釋讀 口訣 硏究 : 資料와 硏究의 現況」, 대구 입겾 연구 1회 요지문, 대구교육대학교, 1-13.
남권희(1995), 「潭陽 龍泉寺 口訣本 三種의 書誌的 考察」, 95년 구결연구회 여름 공동연구회 발표 요지문, 단국대학교, 1-8.
남권희(1996), 「고려 구결자료 『대방광불화엄경』 권제십사의 서지적 분석」, 『口訣硏究』 1, 377-402.
남권희(1997ㄱ), 「高麗 口訣資料 3種 紹介」, 제16회 구결학회 겨울 공동연구 발표 요지문, 관동대학교, 1-7.
남권희(1997ㄴ), 「高麗末에서 朝鮮中期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 16, 485-572.
남권희(1997ㄷ),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147-194.
남권희(1999),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 18, 445-508.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남권희(2003), 「고문헌 연구 방법론 : 『경민편』 언해를 중심으로」, 구결학회 · 국어사자료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문, 1-15.
남권희(2005). 「중간본 『경민편』 언해의 서지적 분석」, 국어사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요지문, 동국대 다향관, 1-13.
남미정(2004), 「接續語尾 '-ㄱ乙'에 대한 一考察」, 『口訣硏究』 12, 157-189.
남풍현(1980ㄱ), 「借字表記法의 用字法에 대하여」, 『난정남광우박사 회갑기념논총』.
남풍현(1980ㄴ), 「口訣과 吐」, 『國語學』 9, 151-161.

남풍현(1987), 「중세국어의 과거시제어미 '-드-'」, 『國語學』 16, 55-63.
남풍현(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진단학보』 69, 75-101.
남풍현(1991), 「高麗時代 口訣의 一·二 問題」, 『어문연구』 70·71 합병호, 261-264.
남풍현(1993), 「借字表記와 古代國語의 語形」,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7-99.
남풍현(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一 高麗時代 楞嚴經』,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20.
남풍현(1997), 「차자 표기법과 그 자료」, 『국어사 연구』, 태학사, 453-464.
남풍현(1998), 「고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207-241.
남풍현(1999), 「고려시대 순독 구결의 'ᄉᆞᆫᄉᆞᆯᄀᆡ'와 'ᄆᆞᄉᆞ'」,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태학사, 465-478.
남풍현(2000),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口訣硏究』 6, 11-40.
남풍현(2001),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11-20.
박병채(1977) :월암 (月巖) 박성의 박사 환력 (還曆) 기념호 : 역대전리가에 나타난 구결에 대하여, 『어문논집』, 405-416.
박부자(2000),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6, 135-172.
박성종(1996), 「宋成文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三 朝鮮初期 楞嚴經』,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20.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口訣硏究』 1, 73-93.
박진호(1997), 「차자 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117-145.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121-205.
박진호(2007), 「음독 구결에 나타나는 'ㄱㅅㄴ'에 대하여」, 제35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1-11.
박희숙(1976ㄱ), 「佛典의 口訣에 대하여」, 『선청어문』 7, 192-200.
박희숙(1976ㄴ), 「禮記口訣 攷」, 『관동대학논문집』 4, 47-64.
박희숙(1978), 「南明泉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 『논문집』 7, 53-67.

박희숙(1989), 「艶夢證釋의 口訣에 대하여」,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5-35.
박희숙(1993), 「懸吐新約聖書 '馬可傳'의 口訣과 그 諺解에 대하여」, 『성기조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150-1178.
백두현(1996),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서울:태학사, 287-384.
석주연(2001),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중세국어 관형사형의 '-오-' 소멸」, 『형태론 3-1(5)』 박이정, 32-52.
손명기(1998), 「향찰과 구결의 借字 비교-구역인왕경, 박동섭본, 남권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대전어문학』 15, 35-50.
심재기(1975),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韓國學報』 1, 일지사, 2-22.
심재기(1976), 「長谷寺 『法華經』의 口訣」, 『美術資料』 19, 40-50.
안병희(1975), 「口訣의 硏究를 위하여」,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학교, 133-142.
안병희(1976ㄱ), 「童蒙先習과 그 口訣」, 『김형규선생 정년퇴임기념논문집』 41.
안병희(1976ㄴ),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 41, 143-162.
안병희(1976ㄷ), 「中世語의 口訣記寫資料에 대하여」, 『奎章閣』 1, 51-65.
안병희(1977), 『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一志社.
유탁일(1977),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 口訣」, 『荷西金鍾雨博士 回甲紀念論文集』, 제일문화사, 379-422.
이 용(1996), 「'-乙'에 대하여」, 『口訣硏究』 2, 131-160.
이 용(1998), 「연결 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전기 중세국어 차자 표기를 중심으로-」, 『口訣硏究』 4, 23-56.
이 용(2000), 「연결어미 형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건식(1996), 「구결자의 코드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口訣硏究』 1, 235-265.
이금영(2000ㄱ),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금영(2000ㄴ), 「구결자 '-ㅏ', '-ㅂ/ㅈ-'의 분포와 기능에 대하여」, 『제22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이덕홍(1987), 「正俗諺解에 나타난 구결의 고찰」, 『어문연구』 15, 어문연구회, 248-266.

이승재(1989), 「借字表記 硏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的 硏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203-239.
이승재(1990),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117-147.
이승재(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서울: 문학과 지성사, 56-76.
이승재(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진단학보』 78, 307-326.
이승재(1995), 「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一(고려시대 능엄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5-348.
이승재(1996), 「'ㄱ' 약화 탈락의 통시적(通時的) 고찰」, 『國語學』28, 국어학회, 49-79.
이승재(1997ㄱ), 「차자 표기의 변천」, 『국어사 연구』, 태학사, 211-246.
이승재(1997ㄴ), 「吏讀와 口訣」, 『새국어생활』 7-2, 135-144.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41-75.
이승재(2000ㄱ) :「尊敬法 先語末語尾 '-ㅭ/ㅿ[시]-'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0, 215-237.
이승재(2000ㄴ), 「국어 문자체계의 발달--차자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상대계』 제1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09-149.
이승재(2000ㄷ),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국어국문학』 127, 1-16.
이승재(2002), 「口訣資料의 '-ㄱ-' 弱化·脫落을 찾아서」, 『韓國文化』 30, 1-30.
이승재(2003), 「異體字로 본 高麗本 楞嚴經의 系統」, 『口訣硏究』 11, 153-188.
이승희(1996), 「고려시대 구결자료에 나타나는 감동법」,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1-12.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전경(2003), 「15세기 口訣의 表記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전경(2006), 「구결사전 편찬 방안과 관련하여」, 구결학회 제32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17-27.
이준석(2004), 「유니코드에 제출될 구결자의 방안」, 구결학회 제29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1-10.
장윤희(1998),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전병용(1995), 「中世國語의 語尾 '-니'에 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전병용(1999), 『중세국어의 어미 「-니」에 대한 연구』, 청동거울.
전혜숙(2000), 「두주본 『주역대문』의 구결자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22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1-11.
정 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口訣硏究』 11, 53-86.
정은영(2005), 「『몽산화상육도보설』 이본의 입겾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재영(1994),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1994년 여름 구결연구회 구두 발표, 1-12.
정재영(1995), 「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 『國語學』 25, 221-265.
정재영(1996ㄱ),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口訣硏究』 1, 127-234.
정재영(1996ㄴ), 「祇林寺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二『조선초기 능엄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5.
정재영(1996ㄷ), 「終結語尾 '-立'에 대하여」, 『震檀學報』 81, 195-214.
정재영(1997), 「'-오-'의 변화」, 『國語史 硏究』, 태학사, 601-643.
정재영(1997), 「借字表記 연구의 흐름과 방향」, 『새국어생활』 7-4, 31-59.
정재영(2001), 「國語 感歎文의 變化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2, 293-325.
정재영(2003), 「口訣 硏究史」,『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서울:집문당, 101-125.
정재영(2006ㄱ), 「불갑사(佛甲寺) 소장의 화암사판(花岩寺版) 『부모은중경』에 대하여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211-244.
정재영(2006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원흥사본 『금강경』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회 제3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1-14.
정호반(1997), 「宋成文本 楞嚴經 口訣의 助詞 硏究」,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종업(1996), 「口訣의 機能硏究」, 96년 구결학회 겨울 공동연구회 발표 요지, 충남대학교, 1-4.
최범훈(1972), 「'口訣' 硏究」, 『국어국문학』, 55-57, 519-534.

최범훈(1978), 우암발판(尤庵跋版) 「동몽선습(童蒙先習)」의 구결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127-135.
최범훈(1979), 「『맹자집주』 혼성구결에 대하여」, 『논문집』, 청주사범대학, 1-20.
최범훈(1982), 「書釋의 特殊口訣에 대하여」, 『論文集』 11, 경기대학교 85-102.
최은규(199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660-689.
하귀녀(2004), 보조사 '-곳/옷'과 '-火七', 『國語學』 43, 121-143.
한상화(1994), 「祇林寺本 『楞嚴經』 口訣의 硏究」,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윤표(1986), 「근대국어 省劃吐에 대한 연구-『소학제가집주』를 중심으로」, 『동천 조건상선생 고희논총』, 357-379.
홍윤표(1995), 「구결문법에 대한 단상」, 구결학회 여름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1-8.
황국정(2000), 「속격 어미가 실현된 명사구 구성에 대해-향가와 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학회 제22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1-15.
황금연(1997), 「『여씨향약(呂氏鄕約)』의 구결 (口訣) 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121-143.
황선엽(1996), 「一簑文庫本 『大方廣圓覺經疎注經』」, 『口訣硏究』 1, 95-126.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선엽(2003), 「구결자 '斤'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硏究』 10, 115-141.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번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E-mail: dbstjf@ynu.ac.kr
접수일자: 2008. 05. 04.
게재결정: 2008. 07. 17.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study on *Eumdok-kugyol*

Nam, Kyeong-nan

This study is the arrangement of the study result until now about especially *Eumdok-kugyol*.

Eumdok-kugyol study seriously started from the 1970s. After that, it has focused on the letter approach and has gradually subdivided, so it has remained on describing the original letter of *kugyol* letter type and reading, distribution and combination type, orthography and grammar features. And in the 1990s, not only made the study clear the historical research and the form function about *Kugyol* letter type, but also integrated these studies, and there were the trials of the general arrangement of *Kugyol*. And in the 2000s, the study came to write several thesises of degrees organized *Eumdok-kugyol* letter type and grammar feature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study results of *Eumdok-kugyol* introduced in this paper divided into (1) letter study, (2) morphologic and syntactic study, (3) the others, and examined the results yearly from 1970 to 2000.

The study about *Eumdok-kugyol* until now mostly dealt with

the letter side and morphologic and syntactic side. Through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the annotations published from Gangyoung-dogam in the 15th century, it is time to arrange the grammar form of some *Kugyol* which has been hard to make clear all the while. In the side of Korean history, *Eumdok-kugyol* materials play a bridge role for *Buho Seokdok-kugyol* materials in the period of Goryeo and Hangeul *Kugyol* material published after Hangeul invention. So if it turns out a relevance between good *Eumdok-kugyol* materials which are easy to figure out the meaning and annotations in the 15th century, it can find more clear evidence about the language transition before and after Hunmin-jungeum invention.

To do that, even though the study on *Eumdok-kugyol* was introduced to the academic world, it is the urgent problem to secure the researchers for analyzing the materials systematically and sticking at the study. And also the challenge is to make sure to classify and arrange a lot of *Eumdok-kugyol* materials of piled up Confucianism and Buddhism scripts which is not excavated yet. This task is the fundamental study to clarify the lineage of *Kugyol* transition from the period of Goryeo and the end of Joseon dynasty. Even if the task is expended time and effort, it should be accomplished.

Along with this, collecting, arranging, and spreading the original copy or Youngin-bon of *Eumdok-kugyol* material which has excavated all the while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Furthermore, the remaining task is also to publish a guidebook for the systematic study about *Eumdok-kugyol*.

Key Words : *Eumdok-kugyol*, the study result, letter study, morphologic and syntactic study, Retrospect, prospect